

일본의 독서배리어프리 정책과 현황*

Japan's Reading Barrier Free Policy and Status

윤 유 라 (You-Ra Youn)**

이 은 주 (Eun-Ju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일본 공공도서관의 독서배리어프리법 적용 |
| II. 독서배리어프리의 개념 | V. 결론 |
| III. 일본의 독서배리어프리법 제도의 현황 | |

요약: 본 연구는 2019년 일본에서 제정된 『시각장애인등의 독서환경 정비 추진에 관한 법령』 일명 독서배리어프리법의 제정과정과 내용적 특성을 분석하고 일본에서 독립적인 법이 제정되고 정책이 추진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독서복지와 관련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공공도서관이 어떻게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의 독서배리어프리법은 적용대상을 장애인에게 한정하고 있다는 한계와 환경개선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독서약자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독서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에서 다양한 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단독 법령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배리어프리, 독서배리어프리, 독서복지, 장애인서비스, 일본공공도서관

ABSTRACT: In 2019, Japan enacted the Reading Barrier-Free Law, also known as the Act on the Promotion of a Reading Environment for the Visually Impaired, as a stand-alone law to ensure that everyone can enjoy reading without discrimin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and content of Japan's reading barrier-free law and examines the independent legislation process and policy implementation in Japan to determine its impact and effectiveness. In particular, it examines how public libraries in Japan, which play a central role in reading welfare, are developing and implementing related policies and draws implications that can be applied to Korea. Although Japan's Barrier-Free Law has limitations in that it is limited to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re is no compulsion to improve the environment, resulting in a low participation rate of local governments, it has been significant in it has spread awareness of the social role of the reading disadvantaged and the importance of reading welfa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discuss the necessity of enacting a separate law targeting various reading marginalized groups in Korea in the future.

KEYWORDS: Barrier Free, Reading Barrier Free, Reading Welfare, Service for the Disabled, Japanese Public Library

* 이 논문은 2024학년도 동의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yryoun@deu.ac.kr / ISNI 0000 0004 6098 1699) (제1저자)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ejulee@deu.ac.kr / ISNI 0000 0004 6335 8325)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5년 2월 24일 • 최초심사: 2025년 3월 4일 • 게재확정: 2025년 3월 13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6(1), 129-156, 2025. <http://dx.doi.org/10.16981/kliss.56.1.202503.129>

※ Copyright © 2025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얼마 전 EBS에서는 21세기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독서를 강조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였다(EBS, 2024). 다큐멘터리에서는 독서가 학습의 기초이자 배움의 중요한 도구임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독서를 기반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독서를 통해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관찰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였다. 더불어 효과적으로 책을 읽는 방법과 독서 후 활동인 토론 등의 방법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언급하였다. 이처럼 독서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량임이 강조되고 있다.

독서능력이 미래의 삶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역량이라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시민들의 독서관리를 지원하는 것 또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5년마다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독서관련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2년마다 『국민독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에 발표되었던 『제3차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독서의 가치를 공유하고 사회적 독서 활성화를 도모하며, 포용적 독서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중점과제로 수립하는 등 독서와 관련된 사회적 역할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올해 발표된 『제4차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도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독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독서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독서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 등의 국외 또한 동일하게 독서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정일권 외(2014)의 연구에 따르면 독서 선진 국가들은 정책뿐 아니라 인프라 구축, 세제 지원, 캠페인을 통해 독서진흥 정책을 시행 중에 있음을 밝혀 내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2001년 「어린이 독서활동의 추진에 관한 법률」, 「학생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연령별 독서활동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학생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 수립·추진되면서 독서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한 독서복지는 사회적 약자가 모든 이들과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 사회적 약자를 도와준다는 시혜적 관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독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독서복지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제기된 신조어로, 교육복지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구(최인자, 2020)나 문화복지의 한 유형으로 간주한 연구(옥현진, 2020)에서와 같이 개념 정의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분분한 상태이다(김현애, 2022, 62). 따라서 신체적 혹은 사회적으로 독서를 진행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독서 관련 약자의 범주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며 그 범주에 따라 그들의 특징이 반영된 독서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종합적·다면적 사회적 배려와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효과적인 독서복지 수행을 위해 정책과 계획의 정교화와 체계화를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독서약자에 집중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2019년 일본에서는 누구나 차별 없이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환경 정비 추진에 관한 법령』 일명 독서배리어프리법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기본개념과 방향성을 정리하고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차별적인 독서환경을 없애기 위해 독립적인 법안을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일본의 독서배리어프리법의 제정과정과 내용적 특성을 분석하고 (2) 일본에서 독립적인 법이 제정되고 정책이 추진된 과정을 살펴보고 그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3) 독서배리어프리법이 제정되고 난 뒤 도서관 현장에서는 어떻게 환경을 정비하고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지 사례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독서복지와 관련하여 일본의 공공도서관이 어떻게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수행하고 있는지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한국 도서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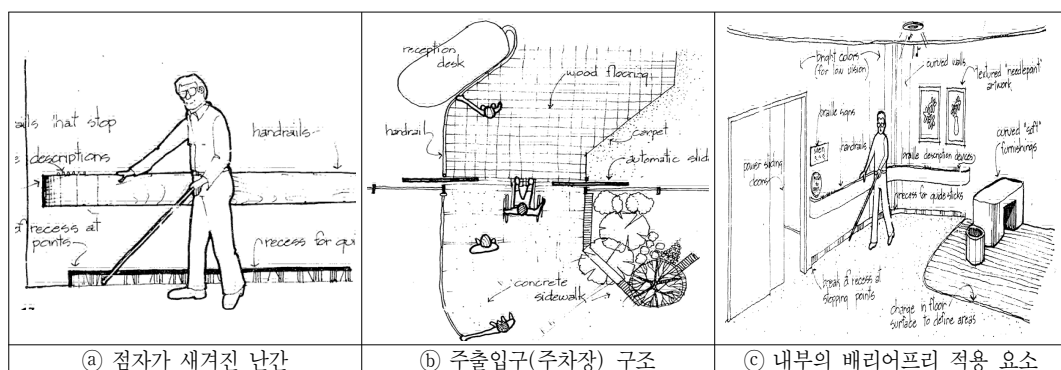
II. 독서배리어프리의 개념

독서약자의 독서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독서배리어프리의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국의 독서복지 정책에서는 독서약자의 범주, 즉 독서활동에 제약이 있는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2016년 독서문화진흥법에 의해 독서 관련 약자의 개념을 ‘독서소외인’으로 정리하고 있다. 독서소외인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통칭하는 것으로(독서문화진흥법 제2조) 독서장애인과 비교하여 개념이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이러한 독서소외인에 대한 관련 조사가 여전히 부족하며,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도 독서소외인을 별도의 조사대상으로 구분하여 면밀히 살피고 있지는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아도 국내에서는 독서소외인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독서약자 중 장애인 집단에 집중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가령, 박찬수(2021)는 독서문화진흥법의 독서소외인의 개념을 인용하며 독서소외인 중 고령층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그 외 연구에서는 독서소외인의 개념보다는 장애아동, 시각장애인, 발달 장애인, 청각장애학생 등의 독서활동을 진단하거나 환경을 검토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김수경 외, 2023; 배형일, 최성규, 2010; 안인자, 2012; 이정연, 2022).

한편 배리어프리는 ‘장애물, 장벽(barrier)’이라는 단어와 ‘자유, ~가 없는(free)’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용어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 및 정책을 의미한다. 1974년 국제연합(UN)의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 회의에서 로널드 메이스(Ronald mace)가 발표한 『장애물 없는 건축설계(Barrier Free Design)』 보고서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하면서 본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건물이나 거주환경에서 계단, 층, 문턱 경사로를 없애는 등 장애가 있는 사람이 생활을 하는데 물리적인 장벽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출발한 용어이다. 비록 건축학 분야에서 시작된 용어이지만 최근 들어 배리어프리 영화, 배리어프리 기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과 같이 여러 용어와 결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떤 것을 사용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디자인되거나 설계되는 광범위한 적용을 의미하고 있다.

도서관계에서도 배리어프리는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는데, 도서관의 책무를 명시한 도서관법 제43조에서는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배리어프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배리어프리의 개념은 오래전부터 도서관 건축 영역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 배리어프리 용어가 등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81년에 출판된 Moss의 『Planning Barrier Free Libraries』에서도 도서관 설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배리어프리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가령, 건물 입구와 건물 내부의 다양한 자료실에는 난간(손잡이)을 설치하여 공간을 이어주고 난간을 따라 점자 설명을 부착하여 자료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그림 1〉의 ㉠), 연석은 모두에게 위험하지만 휠체어를 탄 이들에게는 더욱 큰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염두하여 주출입구(주차장)는 경사로 또는 수평 출입구를 제공해야 하고(〈그림 1〉의 ㉡), 건물 입구는 회전문이 아닌 슬라이딩 도어가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인이 자료실의 구역이나 입구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바닥재를 변경해야 함(〈그림 1〉의 ㉢)을 언급하는 등 매우 구체적으로 도서관 건축의 배리어프리 적용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림 1〉 도서관 건물에 배리어프리 디자인 적용 사례 (Moss, 1981, 30-32)

그러나 도서관계에서의 배리어프리는 건축과 공간설계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책을 읽을 권리라는 의미의 ‘독서권’은 비장애인에게 생소한 개념이지만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기본권인 독서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눈이 보이고 책을 들 수 있고 책장을 넘길 수 있으며 독서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서점에 자유롭게 사러 다닐 수 있어야 한다”는 이치카와 사오(市川沙央)의 표현처럼 모든 이들에게 장벽 없이 제공되는 권리가 아니다(市川沙央, 2023, 37). 이에 따르면 도서관에서 독서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배리어프리가 적용된 대표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독서권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권리로, 가장 정선된 콘텐츠가 담겨있는 책을 장애를 가진 사람이 방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즉, 물리적·경제적·사회적·인지적 장애와 상관없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이들이 정보를 획득하고 통찰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는 권리로, 이러한 독서권은 어린이, 다문화가정, 장애인, 저시력자, 중·노년층 등의 독서약자들이 자유롭게 독서하는데 장애가 되는 다양한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독서권을 보장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백원근, 2021).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독서배리어프리이다.

Ⅲ. 일본의 독서배리어프리법 제도의 현황

1. 독서배리어프리법의 제정 배경

일본에서는 오랜 시간 약자에 대한 독서권 보장과 배려가 필요하며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해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독서배리어프리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교과서배리어프리법』의 제정과 『장애인권리조약』의 비준, 『저작권법』의 개정이었다. 본 절에서는 각각의 법령 및 조약이 어떻게 독서배리어프리법의 제정을 촉진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과서배리어프리법은 장애가 있는 아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과용 특정도서의 발행 촉진을 위해 2008년 제정된 『장애가 있는 아동 및 학생을 위한 교과용 특정 도서 등의 보급 추진 등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동법은 국민독서의 해를 맞이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동법에서 지칭하는 교과용 특정도서 등이란 ‘시각 장애가 있는 아동 및 학생의 학습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검정교과용 도서를 확대하여 복제한 도서’, ‘검정교과용 도서를 점자에 의해 복제한 도서’, 또는 ‘장애가 있는 아동 및 학생의 학습을 위해 제작된 교재로서 검정교과용 도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제2조제1항). 이 법이 제정되고 난 뒤 일본의 시각장애인 복지단체들은 학습을 위한 교과용 도서뿐 아니라 다양한 독서

자료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된 법 제정을 문부과학성(한국의 교육부)에 요청하게 된다. 이들은 출판사가 누구나 평등하게 활자 도서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도서관 내에서 독서배리어프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매체를 확충하고, 국립도서관의 전자도서관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요구하였다.

두 번째 영향 요인은 장애인권리조약의 비준과 이를 계기로 일본 내의 관련 법 정비를 진행한 것이었다. 2008년 국제연맹에서 발표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조약』은 장애인이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을 스스로가 선택한 형태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전달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제21조),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보하고(제24조), 장애인이 이용하기 쉬운 양식(형태)을 통해 문화적 창작물을 입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제30조제1항(a)), 장애인이 도서관 등 문화적 서비스가 행해지는 장소를 이용할 기회를 확보하며(제30조제1항(c)),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이 장애인이 문화적 창작물을 입수하는 기회에 방해가 되거나 차별적인 장벽이 없도록 할 것(제30조제3항) 등이 명시되어있다. 이러한 국제연맹 조약의 비준을 위해 일본에서는 법령을 정비하게 되었다. 장애인권리조약의 차별 금지와 관련된 규정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차별의 금지를 규정한 장애인기본법 제4조를 구체화하였다. 더불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책무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 추진을 위한 법률』을 2013년 제정하였다.

마지막 영향요인은 저작권법의 개정이었다. 2013년 세계지적소유권기관(WIPO)의 시각장애인 이외에 인쇄물의 판독에 장애가 있는 자의 저작물 이용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마라케시조약)이 채택되고 일본에서는 2018년 5월 『저작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 등의 정보 확보를 위해 만들어져 있는 권리제한규정(저작권법 제37조제3항)의 적용대상자를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외에도 신체 부자유 등으로 인해 책과 같은 서적을 혼자서 들어 올리거나 페이지를 넘기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없어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까지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 중, 그들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자의 확대뿐 아니라 독서 기회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그러한 인식을 통해 논의된 구체적인 방안으로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체계의 강화, 접근성이 높은 전자서적 판매 촉진 등, 관련 독서환경 정비의 필요성이 언급되었고 독서배리어프리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고도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평생학습 지원과 원활한 정보획득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던 국제적인 추세를 적극 수용하고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시각장애인의 개념을 확장하고, 기회균등을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저작물 접근권을 보장하는 등, 독서환경의 정비 즉 독서배리어프리 정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2. 독서배리어프리법의 내용적 특성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본은 오랜 시간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철폐뿐 아니라 다양한 배려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왔다. 이러한 논의는 2019년 독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독서배리어프리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본 절에서는 실제 독서배리어프리법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내용과 특성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독서배리어프리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독서 환경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독서를 통해 활자 문화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에 목적(제1조)이 있다.

본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독서환경 정비를 필요로 시각장애인 등은 시각장애, 발달장애, 지체장애, 그 외의 장애로 인해 시각에 의해 표현된 자료(서적, 잡지, 신문 그 외의 간행물을 포함)의 인식이 어려운 사람(제2조제1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의 저작권법 제37조 제3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청각 또는 시각, 그 외의 장애로 인해 저작물 이용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과 동일한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서배리어프리법이 지향하는 기본이념과 목표를 살펴보면 제3조에서 3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먼저,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쉬운 전자책(DAISY 도서, 음성 읽기 대응 전자책, 오디오북 등) 등이 독서 편의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 및 다른 분야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쉬운 전자책 등의 보급을 촉진하고, 시각장애인의 수요를 반영해 지속해서 이용이 용이한 도서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쉬운 도서 및 전자책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하며, 셋째, 시각장애인 등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동법은 문부과학성(한국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하는 개념)과 후생노동성(한국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 해당) 등의 주무 부서와 관련 부서를 명시하고 재정적인 조치에 관해 기술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천명하고 시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중앙부서뿐 아니라 각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법령에 명시하고 있어 체계성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무 부서의 역할은 법령 제7조에 기술되어 있다. 제7조에 따르면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은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환경 정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수립된 기본계획의 내용은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독서환경 정비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종합적인 시책 방향뿐 아니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기술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더불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성(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 해당), 총무성(한국의 행정안전부에 해당) 및 기타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 등 기타 관계자의 의견 또한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수립된 기본계획은 지체없이 인터넷 및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해야 하며,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지방공공단체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지역에 적절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8조)고 적시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 반영되어야 할 주요 기본시책은 총 8가지로, 시각장애인 등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제도 정비(제9조),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체제 강화(제10조), 특정도서 및 특정 전자책 등의 제작 지원(제11조), 접근가능한 전자책 등의 판매 촉진 등(제12조), 외국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전자책 등을 입수하기 위한 환경 정비(제13조), 단말기 등 이에 관한 정보 입수 지원(제14조), 정보통신기술 습득 지원(제15조), 제작 인력-도서관서비스 인력 양성 등(제17조)이 있다.

3. 독서배리어프리 관련 정책 현황

그렇다면, 독서배리어프리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은 현재 어느 정도 수립 되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을까. 본 논문에서는 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본계획과 추진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무 부서인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에서는 독서배리어프리 정책의 수행을 위한 협의체를 결성하고 운영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법령과 종합계획을 안내하고 도서관이 독서배리어프리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협력 가능한 관련기관을 연결하는 작업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정책의 방향성을 정리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 이외에도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었다(厚生労働省, 2025).

〈표 1〉은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2020~2024년을 기준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의 개요를 정리한 것이다(厚生労働省, 文部科学省, 2020).

〈표 1〉 2020~2024년 제1기 독서배리어프리 기본계획

기본 방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용 전자책 등의 보급 및 장애인용 도서의 지속적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 가능한 전자책(음성낭독 대응 전자책, DAISY 도서, 오디오북, 텍스트 데이터 등)에 대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과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장애인 시설, 도서관 등에서 제작되는 전자책 등을 양대 축으로 하여 그 보급을 도모한다. • 시각장애인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접근 가능한 도서(점자도서, 확대도서 등)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 접근 가능한 도서, 전자책 등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부속도서관, 학교도서관, 국립국회도서관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접근 가능한 도서 등을 확충한다. • 접근 가능한 도서 등을 전국의 시각장애인 등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도서관 간 연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3. 시각장애인 등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환경의 정비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각장애인 등의 개별적 요구에 따라 적절한 형태의 도서 등을 준비한다.
----------	---

시책 방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각장애인 등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제도 정비 등(제9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도서관, 국립국회도서관, 점자도서관의 접근 가능한 도서 등의 확충 • 각 도서관의 특성 및 지역의 이용자 요구 등에 따라 원활한 이용을 위한 지원 강화 • 시각장애인 등 장애가 있는 학생 및 학생 등이 재학 중인 학교의 독서환경 보장 • 공공도서관 등에서의 장애인 서비스 강화 2.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체계 강화(제10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 가능한 도서 등의 통합 검색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홍보 • 국립국회도서관과 사파에도서관의 서비스 홍보,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체계 등 검토 • 사파에도서관 회원 가입 촉진 등 사파에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지원 추진 3. 특정 도서-특정 전자책 등의 제작 지원(제11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파에도서관의 제작 절차 및 사양 기준 작성 지원 • 특정 도서-특정 전자책 등(=저작권법 제37조에 의해 제작되는 장애인용 도서-전자책 등)의 제작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한 제작 효율화 • 제작자에게 전자책 기록물 제공에 관한 과제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출판 관계자와의 논의의 장을 마련 4. 접근 가능한 전자책 등의 판매 촉진 등(제12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기술 등의 진보를 적절히 반영한 표준 등의 보급 촉진 • 접근 가능한 전자책 등의 판매 등에 관한 저작권자와 출판사와의 계약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 도서 구매자에 대한 전자책 기록 제공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출판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 마련 • 민간 전자책 서비스의 도서관 도입 지원 5. 외국에서 접근 가능한 전자책 등을 입수할 수 있는 환경 정비(제13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제공기관의 역할 분담 등을 통한 원활한 입수 및 외국에 대한 제공 촉진 6. 단말기 및 이에 관한 정보 입수 지원, ICT습득 지원(제14조, 제15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도서관 등과 ICT지원센터의 연계를 통한 단말기기 등 정보 접근 지원 • 점자도서관과 공립도서관의 연계로 사파에도서관 등 ICT를 활용한 이용방법에 대한 상담 및 습득 지원, 단말기 대여 등 지원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단말기 등의 혜택 실시 7. 접근 가능한 전자책 등 - 단말기 등에 관한 첨단기술 등의 연구개발 촉진 진전 등(제16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및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개발 성과 확산 8. 제작 인력-도서관 서비스 인력 양성 등(제17조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서, 사서교사-학교사서, 직원 등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수 등 실시 • 점역자-음역자, 접근 가능한 전자 데이터 제작자 등 계획적인 인력 양성
----------	--

〈표 1〉과 같이 2020~2024년 기본계획에서는 법령이 정한 3가지 기본방침과 8가지의 시책방향을 바탕으로 향후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기술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독서환경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도서관의 자료 양적 확대와 접근성 강화, 더불어 관련 첨단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었으며, 도서관의 전문 인력 등의 계획적인 양성과 자질 향상 등을 독서배리어프리법의 중요 정책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얼마나 많은 지방공공단체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까. 2024년 문부과학성이 독서배리어프리 계획수립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文部科学省, 2024). 도도부현(都道府県)의 경우 28곳 중 19곳(40.4%), 지정도시(指定都市)는 20곳 중 3곳(15%), 중핵시(中核市) 62곳 중 11곳(17.7%)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도도부현과 같은 큰 단위의 행정구역에서는 이미 독서배리어프리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계획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그 하위 행정단위인

지정도시와 중핵시의 경우 각각 30%, 58.1%였으며, 해당 단위에서는 향후에도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독서배리어프리법을 적용하기 위한 지방공공단체의 노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지방공공단체의 독서배리어프리 계획 수립 현황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
수립 완료	19 (40.4%)	3(15.0%)	11(17.7%)
수립 중	28 (59.6%)	11(55.0%)	15(24.2%)
수립할 예정 없음	0	6(30%)	36(58.1%)
총합	47	20	62

* 일본의 행정체계로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정도시(指定都市)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시, 중핵시(中核市)는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정됨

IV. 일본 공공도서관의 독서배리어프리법 적용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독서배리어프리법은 장애인서비스의 또 다른 형태라 볼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독서배리어프리법 제정 전후의 일본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서 간략한 흐름을 살펴보고, 법령 제정 후 도서관 현장에서는 어떠한 환경적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본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역사

일본 도서관계에서 공식적으로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1933년 5월 개최된 제28회 전국 도서관대회부터였다. 이후 1974년 제60회 전국 도서관대회를 계기로 이들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분과가 만들어지고, 1978년에는 일본도서관협회 산하에 장애인서비스위원회가 설치되어 관련 논의가 지속되었지만, 여러 사회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다.

이후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은 노멀라이제이션(공생) 사상의 확산과 “장애의 사회적 모델”의 개념이 도입되면서부터였다(野口武悟, 2024).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란 영국에서 태동한 것으로 장애를 개인의 병리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간주하는 의료적 모델을 탈피하여 장애의 원인이 자본주의 사회의 억압적 구조에 있다고 보는 급진적 모델이다. 이 모델은 장애가 개인의 손상 때문이라는 당대의 지배적인 시각을 배척하고 장애의 원인이 사회구조에 있고, 그 해결 방안도 치료나 재활이 아니라 배제와 차별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의 변혁과

장벽의 철폐에 있다고 간주하였다(이주화, 2021). 즉, 장애를 개개인의 상태나 특성 차원에서만 파악하여 개인적 극복 과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관점에서 그들이 마주하게 될 장벽을 파악하여 이를 제거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책임이라고 인식하는 모델이다. 이를 계기로 도서관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로부터 “도서관 이용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로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었으며,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외의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입원환자나 시설 입소자 등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장벽(배리어)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ICT의 보급과 활용도 장애인서비스의 변화를 이끌었다. 1988년 일본의 IBM에서는 컴퓨터 점역 네트워크를 완성하였으며, 이어서 2010년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는 사피에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었다. 사피에도서관은 전국의 점자도서관이 제작하는 점자와 DAISY의 검색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이라면 데이터를 스트리밍 재생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일본 점자도서관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전국시각장애인 정보제공시설협회가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는 국립국회도서관에서도 전국의 공공도서관 등에서 제작한 점자와 DAISY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전용 데이터수집 및 송신 서비스를 시작하였다(サピエホームページ, 2025).

2000년 이후부터는 장애인서비스에 관한 조약과 법률이 잇따라 정비되었다(野口武悟, 植村八潮, 2021). 2013년 6월에는 도서관을 포함한 행정기관 등에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인 배려와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장애인차별해소법 시행을 앞둔 2015년 12월 일본도서관협회에서는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의 장애인차별해소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였다(日本図書館協会, 2015). 전국의 모든 도서관과 도서관 직원이 도서관 이용에서의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환경정비와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도 보급하였다.

마지막으로 2019년 1월 독서배리어프리법이 공포되면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는 적용 대상이 확장되었으며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정교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실천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2. 독서배리어프리법 이후 장애인서비스의 변화

2021년 일본 전국공공도서관협회는 독서배리어프리법이 제정되고 난 뒤 도서관에서 관련 시설과 서비스가 어떻게 정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1,390개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서비스의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日本全国公共図書館協議会, 2022). 해당 조사에서는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기본 체제(직원, 위원, 예산 등), 자료의 소장 및 자관 제작 현황, 장애인서비스 운영 내용

및 이용 현황, 설비·기기·지원 용품, 도서관의 웹사이트 운영 현황, 홍보방법, 점자도서관과의 협력 유무 등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조사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점을 논의한 2022년 분석보고서(日本全国公共図書館協議会, 2023)를 발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2021년 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자료소장 현황, 독서 및 정보획득을 위한 기기 등의 설치 유무, 장애인 관련 서비스의 운영 내용 및 이용 현황, 전담 인력과 예산 등의 결과를 정리하여 실태를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2017년에 이루어진 국회도서관의 주도의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실태 조사(日本国立国会図書館, 2018)와 비교가능한 경우는 각각의 조사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으며, 2022년의 분석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였다.

먼저, 자료소장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3>을 살펴보면 2017년도 국회도서관 주치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장애인서비스에 활용되는 자료의 소장 도서관수와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소장자료 수의 추이를 보면, 대체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표 3>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자료소장 현황

자료형태	2021년 전국공공도서관협회조사 응답관수=1,390				2017년 국회도서관조사 응답관수=1,147			
	도서관 수	소장률	전체 소장자료 수	평균 소장수	도서관수	소장률	전체 소장자료 수	평균 소장수
점자자료·점자그림책 (책자)	1,030	74.1%	234,020	259	740	64.2%	155,321	210
음성DAISY	361	26.0%	121,577	367	306	26.6%	94,028	307
멀티미디어DAISY	297	21.4%	25,687	93	177	15.4%	10,427	59
대환자본(시판)	1,280	92.1%	1,613,091	1,339	982	85.2%	712,396	725
LL북스	921	66.3%	16,316	20	363	31.5%	3,664	10

*2022년 공공도서관의 독서배리어프리에 관한 보고서(日本全国公共図書館協議会, 2023, 21).

특히, LL북스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L북스의 “LL”은 스웨덴어 Lättläst의 약어로 ‘부드럽게 읽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간단한 내용을 사진이나 그림을 중심으로 부드러운 어휘나 문법을 사용하여 제작함으로써 지적 장애 등에 의해 언어 이해가 곤란한 이용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된 책을 의미한다(日本国立国会図書館SEARCH). 이러한 자료의 증가는 독서활동 배려 대상을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지체장애, 그 외의 장애로 인해 시각을 중심으로 표현된 자료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제2조제1항)으로 확장하려는 독서배리어프리법의 방향성을 적절히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독서 및 정보획득을 위한 기기 등의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2017년 국회도서관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표 4>와 같다. 결과에 따르면 ‘확대경, 돋보기’ 외 대부분의 기기 설치

제자리걸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DAISY자료가 다양화되면서 ‘음성DAISY재생기’의 설치률은 1.1% 감소하고 있었으나 2021년 조사에서 항목을 추가한 ‘멀티미디어DAISY를 재생하기 위한 태블릿·PC’를 설치한 도서관은 14.0%(194관)로 늘어나면서 실제적으로는 DAISY 재생을 위한 기기를 설치한 도서관은 증가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DAISY제작을 위한 음성 DAISY편집 소프트웨어는 2.3% 감소, 멀티미디어DAISY편집 소프트웨어는 0.3% 증가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표 4〉 장애인의 독서 및 정보획득을 위한 기기 설치 현황

기기 형태	2021년 전국공공도서관협회조사 응답관수=1,390		2017년 국회도서관조사 응답관수=1,147	
	도서관 수(관)	설치 비율(%)	도서관 수(관)	설치 비율(%)
기기·지원도구				
확대경, 돋보기	1,334	96.0	824	71.8
독서확대기	769	55.3	621	54.1
음성DAISY재생기	440	31.7	376	32.8
멀티미디어DAISY재생을 위한 태블릿, 컴퓨터	194	14.0	-	-
음성독서기	208	15.0	182	15.9
읽기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	152	10.9	143	12.5
점자단말기	47	3.4	38	3.3
점역소프트웨어	122	8.8	130	11.3
점자프린터	149	10.7	163	14.2
음성DAISY편집소프트웨어	163	11.7	161	14.0
멀티미디어 DAISY편집소프트웨어	44	3.2	33	2.9
디지털녹음기	156	11.2	156	13.6
CD복사기	186	13.4	163	14.2
자동페이지 넘기는 기계	5	0.4	-	-

* 2021년 공공도서관의 독서배리어프리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日本全国公共図書館協議会, 2022, 63), 2022년 공공도서관의 독서배리어프리에 관한 보고서(日本全国公共図書館協議会, 2023, 60)를 참조하여 편집함.

다음으로 관련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조사 결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도서관의 실태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가 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특별지원학교·학급에 대한 서비스의 운영 비율이 43.4%(604개 관)로 가장 높았으며, 이용 실적 또한 77.5%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운영 실적은 낮지만 이용 실적이 높은 서비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택배서비스의 경우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 19.6%였지만 이용 실적이 75.4%로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시설, 인력, 교정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용자의 요구조사를 시행하여 현재의 서비스를 점검하고 향후 확장 및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를 발견하고 개발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표 5〉 장애인서비스 운영 및 이용 현황

서비스 항목	서비스 운영 실적		도서관의 이용 실적		
	도서관 수(관)	운영 비율(%)	도서관 수(관)	운영도서관 상대 비율(%)	전체 도서관 상대비율(%)
대면낭독서비스	475	34.2	142	29.9	10.2
접자·녹음자료의 우편대출	307	22.1	307	100.0	22.1
일반자료의 우편대출	364	26.2	191	52.5	13.7
직원에 의한 택배서비스	273	19.6	206	75.4	14.8
시설(장애인·고령자시설 등) 입소자를 위한 서비스	592	42.6	483	81.6	34.7
입원환자에 대한 서비스	122	8.8	61	50.0	4.4
수형자등의 교정시설에 대한 서비스	34	2.4	16	47.0	1.1
특별지원학교·학급 등의 서비스	604	43.4	468	77.5	33.7

* 운영 도서관 이용 실적은 서비스 운영 실체가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조사한 비율임
2021년 공공도서관의 독서배리어프리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日本全国公共図書館協議会, 2022, 29-41)를 참조하여 편집함.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반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유 응답의 문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日本全国公共図書館協議会, 2022, 73-78). 자유 응답 문항에서는 독서배리어프리 관련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는데 476개의 자유 응답 중 170개의 응답(35.7%)에서 이용자의 요구분석(홍보 포함)이 부족하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고 있었다. 현장의 사서들은 폭넓은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전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서비스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며, 향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면밀한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의 문제로는 예산 부족(158개 관, 33.2%), 전담 인력의 배치(156개 관, 32.8%), 도서관협력인력·자원봉사자 확보(41개 관, 8.6%), 직원의 전문성 강화(171개 관, 35.9%), 시설·설비·기기 부족(104개 관, 21.8%), 자치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49개 관, 10.3%), 장서(출판사업 등을 포함) 확충(64개 관, 13.4%) 등이 있었다.

이러한 현장 사서들의 지적은 장애인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이 전체의 30.8%(428관)이며 예산이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이 57.9%(805관)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와도 연관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도서관의 독서배리어프리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전문가 단체도 체계적인 지원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3. 공공도서관의 적응 사례 및 운영 방안

본 절에서는 일본공공도서관협회가 발행한 분석보고서(日本全国公共図書館協会, 2023)와

학교도서관 등의 독서배리어프리 컨소시엄(学校図書館等における読書バリアフリーコンソーシアム)의 참조사례 및 관련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를 추출하여 그 중 타 도서관과 상이한 특징을 보이는 4개의 도서관을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논의에 필요한 데이터는 성과보고서, 사례집과 신문 기사를 참조하되, 해당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확보하였다. 더불어, 단위도서관이 향후 독서배리어프리를 실천하기 위해 어떠한 시설을 갖추고 서비스를 수행하여 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일본도서관협회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본공공도서관에서 추구하고 있는 독서배리어프리의 방향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가. 공공도서관 적용 사례

(1) 히라카타시립도서관(枚方市立図書館 홈페이지; 日本全国公共図書館協会, 2023, 104-105)

오사카에 위치한 히라카타시립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7개 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중앙도서관 5층에 '배리어프리독서지원실'이 자리 잡고 있으며, 배리어프리 독서지원담당 사서인 시각장애인 1명, 청각장애인 1명, 비장애인 1명과 장애인서비스 전문 직원 1명, 비정규직 1명으로 총 5인이 전담으로 지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담당 직원들은 전담지원실에 배치되어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인 요구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인서비스가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① 청각장애인을 위한 만화코너

히라카타시립도서관은 1995년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중 하나로 만화책을 수집하고 대출하는 특색사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도서관에서는 청각장애인과 교류회를 개최하였는데 '문자와 그림이 함께 있는 만화는 내용을 이미지화하기 쉬워서 이해하기 좋다. 하지만 도서관에는 만화가 없고,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책이 없는 것이 아쉽다'라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만화책을 수집하게 되었다. 개인차는 있지만, 특히 어린 시절 청력을 잃은 청각장애인들은 정보를 얻는 수단이 시각으로 한정되고 대화도 수화이기 때문에 문장 이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화책은 그림과 글이 함께 제공되어 유익한 정보 제공의 수단이 되고 있다.

②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용 안내 영상 제작

대출·반납·예약 방법 등 구체적인 도서관 이용 방법을 직접 질문하기 힘든 장애인의 불편함을 배려하여 도서관의 담당 직원이 직접 수화와 자막 등을 활용하여 촬영과 편집을 진행한 영상을 제작하여 배치하고 있다. 이용 안내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자도서관 이용법 등 최근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추가하여 개정판을 제작하고 있다.

③ 수화 북토크 진행

시사 문제나 사회문제, 옛이야기 등 특정 주제에 대해 간단한 해설과 관련 도서를 안내하고 신착 도서나 영상자료(DVD) 소개는 프로그램이다. 직원 또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 수화로만 진행한다. 연 3회 정도 개최하고 있어, 들리지 않는 시민들이 도서관이나 책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④ 수화로 즐기는 스토리텔링 운영

청각장애인 엄마가 장애가 없는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희망하면서 시행하게 되었다. 청각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야기 모임으로 한 달에 한 번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 플로어 담당 직원은 수화와 목소리로, 청각장애인 사서가 담당할 때는 수화로 읽어주고 다른 직원이 소리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⑤ 수화 및 일본어 자막이 있는 영상자료 수집 및 상영회 개최

청각장애가 있는 이용자가 내용을 수화로 설명하는 DVD를 찾는 것을 계기로 여러 가지 정보를 수화로 설명하는 DVD를 적극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또한 연1회 배리어프리 영화상영회를 개최하고 있다.

⑥ 간담회 및 전시회 개최

일상적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확인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간담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장애인에게는 소통의 창구를 만들고 비장애인에게는 장애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 12월에는 점자 도서, 멀티미디어 DAISY, LL북등 독서가 곤란한 분의 독서를 돕는 자료를 전시하는 행사 등을 진행하였고 2025년 1월에는 “독서배리어프리 강연회~ 독서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장애나 질병으로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없게 된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배리어프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2) 오사카도서관(大阪府立中央図書館 홈페이지: 全国公共図書館協会, 2022, 106-108)

오사카도서관은 별도의 장애인지원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임 사서 4명, 비정규직 직원 2명으로 총 6명이 전담하고 있다. 특색사업으로는 온라인 대면 낭독 서비스와 청각장애인 특수학교로 방문 수화 스토리텔링 교실을 운영 등이 있다.

① 온라인 대면 낭독 서비스

온라인 대면 낭독 서비스는 낭독자는 도서관에서 이용자는 자택에서 앱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낭독하기 전 이용자에게 전화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음질과 사용이 편리한 앱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2020년도에 개시하였으며 2021년도 2개월간의 도서관 휴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224명, 누적 낭독 시간이 572시간에 이르는 등 도서관의 대표적 서비스로 정착되었다.

② 출장 수화 스토리텔링 교실

모든 어린이가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2020년도에 오사카부 지역에 위치한 3개의 청각 장애인 특수학교와 연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그 중 1개 학교에서 수화를 통한 스토리텔링 교실에 대한 요구가 있어 202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첫 번째 출장교실은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학교의 요구에 따라 국어 단원에서 배우는 서커스와 관련된 북토크와 『서커스의 사자』를 읽어주는 형식으로 진행하되, 대형 디스플레이로 그림책을 표시하고 그 옆에서 수화를 하는 방식이었다. 참가한 어린이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학교와 합의하여 주기적인 출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3) 스이타시립도서관(吹田市立図書館홈페이지; 学校図書館等における読書バリアフリーコンソーシアム 홈페이지)

오사카에 위치한 스이타시립도서관은 2023년, 시각장애인 및 그 외 독서와 도서관이용이 곤란한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2023~2027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다. 도서관이 수립한 계획을 살펴보면, 접근하기 쉬운 자료를 충실히 확보하고, 자료 제작 및 서비스를 위한 인력을 육성하고, 이용하기 쉬운 시설, 설비, 서비스를 충실히 운영하며,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서관체험 활동

지역의 특수학교와 연계하여 도서관 관내정리일(휴관일) 도서관체험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대출방법을 배우고, 멀티미디어DAISY 및 LL북을 활용해보고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도서관 이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향후 친근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② 북스타트 사업과의 연계

기존 진행되고 있는 북스타트 사업에 점자그림책을 추가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수화로 읽어주는 그림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③ 맞춤형 도서관 안내

도서관을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장애인과 독서약자를 위해 쉬운 언어를 사용한 LL관

안내문을 작성하여 안내하고 있다. 또한 “유니버설 코너”, “알기 쉬운 책 코너”를 만들어 점자본, DAISY도서 등을 배치하고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4) 도시마구립중앙도서관(豊島区立図書館 홈페이지: 教育家庭新聞, 2024)

도쿄에 위치한 도시마구립중앙도서관은 타깃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서가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상시적인 장애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가의 이름은 〈그림 2〉와 같이 “사과의 선반”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공간이다. 사과의 선반은 특별한 요구가 있는 아이를 위해 접근이 쉬운 책을 모아놓은 코너를 일컫는 말로 장애인을 위한 코너라는 표현 대신 활용되고 있다. 도시마구립중앙도서관의 서가는 유아도 닿는 높이로 만들어져 있으며, LL북, 수화의 책, 천의 그림책(대·중·소), 만져서 즐기는 책, 큰 문자의 책, 멀티미디어 DAISY도서, 이야기·동요CD, 다양성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 갖추어져 있다. 선반 위 쪽으로는 독서배리어프리에 관련한 팸플렛, 리딩트래커 등과 배리어프리 도서에 대한 안내문을 전시하고, 보호자용으로 『다양한 배움의 시트』를 준비하여 구의 교육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예상을 넘는 대출과 장애인의 도서관 방문으로 서가의 이용률이 높아졌으며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림 2〉 도시마구립중앙도서관의 사과의 선반
(豊島区立図書館 홈페이지)

나. 공공도서관 운영 방안

본 절에서는 일본의 도서관계에서 추구하고 있는 단위도서관의 독서배리어프리 서비스의 운영 방안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일본도서관협회 산하 장애인서비스 위원회에서는 도서관의 규모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를 정리한 『도서관 이용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장애인 서비스) 평가지: 공공도서관편』을 작성·배포하여(日本図書館協会, 2023) 단위 도서관의 구체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서관을 ① 도도부현립도서관, ② 지정도시·인구 50만 명 이상 지자체 도서관 ③ 인구 2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지자체 도서관

④ 인구 5만 명 이상 20만 명 미만의 자치단체 도서관 ⑤ 인구 5만 명 미만의 지자체 도서관 ⑥ 사립 도서관으로 나누어, 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달성 목표를 정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15개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직원체제, 예산, 직원의 연수, 지원·신고·회원등록, 이용등록, 설비·관내 안내, 독서·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기기, 소장자료, 자료 제작, 운영되어야 할 장애인서비스, PR·이용안내, 행사·집회활동, 장애인서비스에 관련된 도서관 협력자·자원 봉사자, 도도부현립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에 관한 시구정촌립도서관·학교도서관의 지원, 공공 도서관상호간 타관종, 타기관과의 협력이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서비스 실태에서 살펴본 항목이었던 직원체제와 독서·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기기, 소장자료,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평가지를 확인해보았다.

〈표 6〉 도서관 이용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평가지의 예시 (日本図書館協会, 2023)

1. 직원체제		①	②	③	④	⑤	⑥
1-1	사무분장에 장애인 서비스를 포함	A	A	A	A	A	B
1-2	장애인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담직원 배치	A	A	A	B	B	B
1-3	장애인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 배치	A	A	A	A	A	B
1-4	장애인서비스를 담당하는 장애가 있는 직원 배치	A	A	B	B	B	C
1-5	장애인서비스이외를 담당하는 장애가 있는 직원 배치	A	A	A	A	B	C
1-6	접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직원 배치	A	A	A	B	B	B
1-7	수화가 가능한 직원 배치	A	A	A	B	B	B
1-8	녹음자료제작의 기초적인 스킬이 있는 직원 배치	A	A	A	B	B	C
1-9	대면상담이 가능한 직원 배치	A	A	A	B	B	B
1-10	독서지원기기등의 설명이 가능한 직원 배치	A	A	A	A	A	B
7. 독서지원,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기기		①	②	③	④	⑤	⑥
7-1	거치형 독서확대기	A	A	A	A	A	A
7-2	휴대형 독서확대기	A	B	B	B	B	B
7-3	탁상형 DAISY재생기	A	A	A	A	A	B
7-4	휴대형 DAISY재생기	A	B	B	B	B	C
7-5	음성독서기	A	A	A	B	B	C
7-6	점자판독기	A	A	A	B	B	C
7-7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소프트웨어						
(1)	스크린 리더(화면 읽기 소프트웨어)	A	A	A	B	B	C
(2)	대면확대소프트웨어	A	B	B	B	C	C
(3)	음성브라우저	A	A	A	B	B	C
(4)	독서전용소프트웨어	A	A	A	B	B	C
(5)	활자OCR소프트웨어	A	A	A	B	B	C
(6)	점역소프트웨어	A	A	A	B	B	C
(7)	자동점역소프트웨어	A	A	A	B	B	C
7-8	상체장애이용 PC 조작을 보조하는 장치 및 PC지원 소프트웨어	A	B	B	B	B	C
7-9	점자프린터	A	A	B	B	C	C
7-10	확대경과 돋보기	A	A	A	A	A	A
7-11	웨어러블 안경	B	C	C	C	C	C
7-12	리딩 트랙커	A	A	A	A	A	A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6권 제1호)

7-13	독서대	A	A	A	B	B	C
7-14	페이지 넘기는 기계	B	C	C	C	C	C
7-15	독서지원용 태블릿	A	A	A	B	B	B
7-16	필답기	A	A	A	A	A	A
7-17	커뮤니케이션 보드	A	A	A	A	A	B
7-18	입체프린터 (3D프린터)	B	C	C	C	C	C
7-19	스마트폰거치대, 태블릿 거치대	B	C	C	C	C	C
7-20	전자 루페	A	A	A	B	B	B
7-21	점자기계	A	A	A	A	B	B
7-22	점자입력기	B	B	B	B	C	C
7-23	표면 작도기(레이즈 라이터)	B	B	B	B	C	C
7-24	탁상 등	A	A	A	B	B	B
8. 소장자료		①	②	③	④	⑤	⑥
8-1	녹음자료(음성 DAISY테이프)	A	A	A	A	A	B
8-2	녹음자료(낭독CD, 낭독 테이프, 오디오북 등)	A	A	A	A	A	B
8-3	점자자료(책자)	A	A	A	A	A	B
8-4	점자자료(데이터)	A	A	B	B	B	C
8-5	멀티미디어 DAISY	A	A	A	A	A	B
8-6	텍스트DAISY	B	B	B	B	B	C
8-7	일반텍스트	A	A	B	B	B	C
8-8	기타 접근가능한 전자책	A	A	B	B	C	C
8-9	대활자본	A	A	A	A	A	B
8-10	확대사본	B	B	B	B	C	C
8-11	점자가 있는 그림책	A	A	A	B	B	B
8-12	만지는 그림책	A	A	A	B	B	B
8-13	천으로 만든 그림책	A	A	A	B	B	B
8-14	기타 배리어프리그림책(수화 포함 등)	A	A	B	B	C	C
8-15	LL북	A	A	A	A	A	B
8-16	자막·수화DVD	A	A	A	B	B	C
8-17	음성 해설이 있는 DVD	A	A	A	B	B	C
10. 추천 장애인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10-1	대면낭독서비스	A	A	A	A	A	A
10-2	독서지원기기의 제공	A	A	A	A	A	B
10-3	일반자료의 우편대출, 또는 택배서비스	A	A	A	A	B	B
10-4	시청각자료의 우편대출, 또는 택배서비스	A	A	A	A	B	B
10-5	점자자료의 우편대출, 또는 택배서비스	A	A	A	A	A	B
10-6	녹음자료의 우편대출, 또는 택배서비스	A	A	A	A	B	B
10-7	저작권법 제37조 제3항에 의해 복제된 장애인서비스용 자료의 우편대출 또는 택배서비스	A	A	A	A	B	B
10-8	접근 가능한 전자책 배달 서비스	B	B	B	B	C	C
10-9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제공	A	A	B	B	C	C
10-10	접근 가능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A	A	B	B	C	C
10-11	접근 가능한 웹OPAC제공	A	A	A	A	A	B
10-12	접근 가능한 관내OPAC제공	A	A	A	B	B	C
10-13	시설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A	A	A	B	B	C
10-14	입원 환자를 위한 서비스	A	A	A	B	B	C
10-15	특별 지원 학교·학급에 대한 서비스	A	A	A	A	B	C
10-16	방문시 합리적 배려 제공	A	A	A	A	A	A
10-17	기기 사용법 등 개별 지원 실시	A	A	A	A	A	A

A: 반드시 이행해야 함, B: 이행해야 함, C: 가능하면 이행해야 함

문항 중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공공도서관이라면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장애인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지원체계 부분에서는 “사무분장에 장애인서비스가 포함”, “장애인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 배치”, “독서지원기기 등의 설명이 가능한 직원 배치”였으며, 독서 및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기기 부분에서는 “거치형 독서확대기”, “탁상형 DAISY 재생기”, “확대경과 돋보기”, “리딩 트랙커”, “필답기”가 있었다. 소장자료 부분에서는 “녹음자료”, “점자자료”, “멀티미디어DAISY”, “대활자본”, “LL북”이 있었으며, 운영되어야 할 장애인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는 “대면낭독서비스”, “독서지원기기의 제공”, “점자자료의 우편대출 또는 택배서비스”, “접근 가능한 웹OPAC제공”, “방문시 합리적 배려 제공”, “기기사용법 등 개별 지원실시”가 있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단위도서관의 독서배리어프리 서비스의 방향성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도서관별로 규모 및 역할에 따라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의 근거자료와 당위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독서약자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 환경 정비 추진에 관한 법령』 일명 독서배리어프리법을 중심으로 제정 배경과 내용적 특징, 이와 관련한 종합계획 등을 분석하고, 일본의 공공도서관에서 독서배리어프리법과 관련 정책이 적용된 공공도서관 우수 운영사례를 살펴보았다. 물론 국내에서도 독서배리어프리의 대표적 적용 대상인 장애인을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유관 법률들이 제정되어 적용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서약자와 관련한 직접적 법률을 제정한 일본의 사례는 국내 도서관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일본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독서복지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에서는 2019년 독서배리어프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독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을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해 온 반면, 본 법령을 통해 일본 도서관계에서는 독서배리어프리를 적용해야 하는 대상을 시각장애, 발달장애, 지체장애, 그 외의 장애로 인해 시각에 의해 표현된 자료(서적, 잡지, 신문 그 외의 간행물을 포함)의 인식이 어려운 사람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2016년 한국에서는 『독서문화진흥법』에서 독서약자의 개념을 독서소외인으로 명명하고, 독서복지의 대상을 장애인뿐 아니라 노령자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까지로 확장함으로써 일본의 독서배리어프리법에서 규정한 독서약자의 범위보다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독서복지 정책의 적용대상이 매우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독서배리어프리법에서는 독서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각 주체의 사회적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해당 법령에서는 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은 독서배리어프리 적용대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회를 조직하여 계획을 실천하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독서문화진흥법』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이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각 지자체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전반적인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계획일 뿐이며 독서약자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두 법률이 가지는 근본적인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독서배리어프리법은 제정 목적 자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약자의 독서환경을 진흥시키고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독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반면, 한국의 독서문화진흥법의 목적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관련법이 독서소외인의 범주를 확장하여 매우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각 주체의 역할 규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도서관 현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일본 독서배리어프리법에 따르면 독서 배리어프리 정책을 실천하고 보급하는 중요 기관으로 도서관에 주목하고, 장서, 시설, 기기, 서비스, 인력, 홍보 등의 실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그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이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장서 및 기기를 확충하는 등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의 편성과 인력을 확보하는 일련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중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처럼 독서소외인을 위한 단독 법률, 혹은 독서소외인에 초점이 맞춰진 법률이 필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독서소외인의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각각의 법령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2023년 일부 개정된 『독서문화진흥법』에서는 독서 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제21조의2)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도서관법』에서도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제6조)에서 장애인서비스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일본과 같이 하나의 통일된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독서활동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 측면의 모든 장애를 없애기 위한 정책 수립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독서약자와 독서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독립된 혹은 초점이 집중된 법령이 한국에서도 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독서소외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일본 공공도서관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아도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별도의 지원실을 마련 하여 독서소외인을 위한 적극적 서비스를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일본의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독서배리어프리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었지만, 장애가 있는 부모가 장애가 없는 아이와 함께 스토리텔링을 즐기고 싶다는 요구에 맞추어 수화와 소리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교실,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대면 낭독 서비스, 수화로 만들어진 영상을 희망하는 이용자를 위해 수화가 첨부되어 있는 영상물의 구입 및 제작서비스, 청각장애인 특수학교를 방문하여 이루어진 방문 북토크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가 기획되고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최근 BF인증제도를 도입한 도서관들이 속속히 등장하여 신체적 약자를 위한 도서관 동선을 설계하고 누구나 불편함 없이 도서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설적 측면의 지원 이외에 콘텐츠와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독서배리어프리의 논의와 실천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독서복지와 관련된 단독 법령 혹은 초점을 맞춘 법령이 제정됨으로써 독서약자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고, 도서관의 중요 기능으로 자리잡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일본의 독서배리어프리법이 나이와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인한 다양한 독서약자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제정된 의도와 달리 시각장애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운영되고, 규정에 강제성이 없으며,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의 방안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점이 존재하지만, 독서약자의 범주를 확장하고 약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독서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갖췄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있는 시도이자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의 결과가 한국의 독서약자를 위한 법률적 필요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구성하는데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수경, 최승숙, 황정현, 윤성은 (2023). 장애 아동·청소년 독서역량 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구성요인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4(3), 129-163.
<http://dx.doi.org/10.16981/kliiss.54.3.202309.129>
- 김현애 (2022). 국내 독서복지 실태 및 개선 방안. 독서연구, 62, 263-290.
<http://dx.doi.org/10.17095/JRR.2022.62.9>
- 독서문화진흥법. 법률 제19794호.
- 문화체육관광부 (2019). 제3차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9-2020).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24). 제4차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24-2028).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박찬수 (2021). 큰글자책 출판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소고. 한국출판학연구, 47(1), 31-54.
<http://dx.doi.org/10.21732/skps.2021.98.31>
- 배형일, 최성규 (2010). 청각장애학생의 독서능력 신장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2(2), 293-308.
- 백원근 (2021). 독서복지 사회를 위한 독서동아리 지원 정책 방향. 2021 사회적 독서 콘퍼런스.

- https://nabeeya.net/nabee/m/view2.html?type=review&cat1=52&cat2=72&cid=93830&set_field=title&search=&page=3
- 안인자 (2012). 도서관을 통한 장애인 독서문화 확산 및 활성화 방안.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43(1), 187-212.
- 옥현진 (2020. 9. 19.).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독서복지 정책. 2020년 한국어교육학회·한국독서학회 연합 학술대회.
- 이정연 (2022).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독서역량 강화를 위한 도서관정책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1), 279-299.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2.33.1.279>
- 이주화 (2021).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둘러싼 손상 논쟁 고찰. *한국장애인복지학*, 54(54), 37-67. <http://dx.doi.org/10.22779/kadw.2021.54.54.37>.
- 市川沙央 (2023). *ハンチバック*. 양윤옥 옮김(2023). *헌치백*. 서울: 허블.
- 정일권, 조운경, 채영길 (2014). 국내외 독서진흥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3), 169-190. <http://dx.doi.org/10.16981/kliss.45.3.201409.169>
- 최인자 (2020). 독서복지를 지향하는 독자 중심의 문식력 교육. *독서연구*, 56, 9-34. <http://dx.doi.org/10.17095/JRR.2020.56.1>
- 학교도서관진흥법. 법률 제18547호.
- EBS (2024. 10. 24.). 다큐멘터리 K - 독자생존. 제3부. 공부의 힘.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LH0ruGhHolI>
- Moss, C. A. (1981). *Planning Barrier Free Libraries*. Washington, D.C. : Library of Congress.
- WIPO (2013). *International Treaty on Limitations and Exception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 サピエホームページ. 출처: <https://www.sapie.or.jp/cgi-bin/CN1WWW>
- 學校図書館等における読書バリアフリーコンソーシアムホームページ. 출처: <https://accessreading.org/conso/>
- 公共図書館と學校図書館の「りんごの棚」 Case1 : 公共図書館「豊島區立中央図書館(東京都)». (2024. 10. 24.). *教育家庭新聞*. 출처: https://www.kknews.co.jp/post_library/20241021_7d
- 大阪府立中央図書館ホームページ. 출처: <https://www.library.pref.osaka.jp/site/central>
- 枚方市立図書館ホームページ. 출처: <https://www.city.hirakata.osaka.jp/0000027069.html>
- 文部科學省 (2024). *視覚障害者等の読書環境の整備の推進に関する計畫の策定状況*. 출처: https://www.mext.go.jp/content/20240710-mxt_kyousei02-000012302_1.pdf
- 小松幸恵 (2021). *読書バリアフリー法・同基本計畫の制定過程と政府の動向*. *國立教育政策研究所紀要*, 150, 59-76.

- 視覚障害者等の読書環境の整備の推進に関する法律. 令和元年法律第四十九号.
- 野口武悟 (2024). 図書館における障害者サービスの現状と展望: 公共図書館に焦点を当てて. 情報の科学と技術, 74(10), 406-412.
- 野口武悟, 植村八潮 (2021). 図書館のアクセシビリティ: 合理的配慮の提供へ向けて. 東京: 樹村房.
- 日本國立國會図書館 (2018). 公共図書館における障害者サービスに関する調査研究. 출처: https://current.ndl.go.jp/wp-content/uploads/mig/report/no17/lis_rr_17.pdf
- 日本國立國會図書館SEARCH. 출처: <https://ndlsearch.ndl.go.jp/>
- 日本図書館協會 (2015). 図書館利用における障害者差別の解消に関する宣言. 출처: <https://www.jla.or.jp/portals/0/html/lsh/201603seminar/sengen.pdf>
- 日本図書館協會 (2023). 図書館利用に障害のある人々へのサービス (障害者サービス) 評価シート. 출처: <https://www.jla.or.jp/library/gudeline/tabid/1015/Default.aspx#1>
- 日本著作権法. 令和六年法律第五十五号.
- 日本全國公共図書館協議會 (2022). 2021年度公立図書館における読書バリアフリー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 출처: <https://www.library.metro.tokyo.lg.jp/zenkoutou/report/2021/>
- 日本全國公共図書館協議會 (2023). 2022年度公立図書館における読書バリアフリーに関する報告書. 출처: <https://www.library.metro.tokyo.lg.jp/zenkoutou/report/2022/>
- 障害のある児童及び生徒のための教科用特定図書等の普及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平成二十年法律第八十一号.
- 障害を理由とする差別の解消の推進に関する法律. 平成二十五年法律第六十五号.
- 吹田市立図書館 홈페이지. 출처: <https://www.lib.suita.osaka.jp/>
- 豊島區立中央図書館 홈페이지. 출처: <https://www.library.toshima.tokyo.jp/index?1>
- 厚生労働省, 文部科学省 (2020). 視覚障害者等の読書環境の整備の推進に関する基本的な計画. 출처: <https://www.mhlw.go.jp/content/000648646.pdf>
- 厚生労働省 (2025). 視覚障害者等の読書環境の整備の推進に係る関係者協議會. 출처: https://www.mhlw.go.jp/stf/newpage_09443.html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ct on Promotion of Dissemination of Specific Textbooks, etc. for Children and Students with Disabilities. Act No. 81 of 2008.

Act on Promotion of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 No. 65 of 2013.
Act on Promotion of Improvement of Reading Environment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
Act No. 49 of 2019.
- Ahn, Inja (2012). Improving strategy of reading culture for printed disabled people in the library.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43(1), 187-212.
- Bae, Hyungil & Choi, Sungkyu (2010). The study on reading strategies and supports to improve reading ability for hearing impaired student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2(2), 293-308.
- Baek, Wonkeun (2021). Policy of supporting reading clubs for a reading welfare society. Social Reading Conference.
https://nabeeya.net/nabee/m/view2.html?type=review&cat1=52&cat2=72&cid=93830&set_field=title&search=&page=3
- Case 1: Public Library Toshima-ku Central Library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2024, October 24). kks web newspaper. Available:
https://www.kknews.co.jp/post_library/20241021_7d
- Choi, In ja (2020). Orientation of reader-centered literacy education for reading welfare. *Journal of Reading Research*, 56, 9-34. <http://dx.doi.org/10.17095/JRR.2020.56.1>
- Copyright Act. Act No. 48 of 1970.
- EBS (2024, October 24). Documentary K - Reader's Survival. Part III. The Power of Studying. Available: <https://www.youtube.com/watch?v=LH0ruGhHolI>
- Hirakata City Library Homepage. Available:
<https://www.city.hirakata.osaka.jp/0000027069.html>
- Ichikawa, Saô (2023). Hunchback. Yang, Yun-ok(2023). Hunchback. Seoul: Hubble.
- Japan Library Association (2015).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Library Use, Available:
<https://www.jla.or.jp/portals/0/html/lsh/201603seminar/sengen.pdf>
- Japan Library Association (2023). Evaluation sheet for library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vailable:
<https://www.jla.or.jp/library/gudeline/tabid/1015/Default.aspx#1>
- Japan National Public Libraries Council (2022). Report on the Study of Reading Barrier-Free in Public Libraries in the 2021. Available:
<https://www.library.metro.tokyo.lg.jp/zenkoutou/report/2021/>

- Japan National Public Libraries Council (2023). Report on the Study of Reading Barrier-Free in Public Libraries in the 2022 Available:
<https://www.library.metro.tokyo.lg.jp/zenkoutou/report/2022/>
- Jeong, Irkwon, Cho, Yun-kyoung, & Chae, Young-gil (2014). A research on the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policy for reading promo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3), 169-190.
<http://dx.doi.org/10.16981/kliss.45.3.201409.169>
- Kim, Hyunae (2022). Domestic reading welfare status and improvement plan: focusing on vulnerable children and youth. *Journal of Reading Research*, 62, 263-290.
<http://dx.doi.org/10.17095/JRR.2022.62.9>
- Kim, Soo-kyoung, Choi, Seongsook, Whang, Jurng hyun & Yoon, Sungune (2023). Research on components for developing a reading competency diagnostic tool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4(3), 129-163. <http://dx.doi.org/10.16981/kliss.54.3.202309.129>
- Komatsu, Sachie (2021). Process of Establishment of the Reading Barrier Free Act and the Master Plan, Promotion of the Relevant Government Policy in Japan. *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olicy Research*, 150, 59-76.
- Lee, Ju-hwa (2021). A review of the impairment debate surrounding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54(54), 37-67.
<http://dx.doi.org/10.22779/kadw.2021.54.54.37>
- Lee, Jungyeoun (2022).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for library policy to strengthen the reading ability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3(1), 279-299.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2.33.1.279>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The 3rd Reading Culture Promotion Plan (2019-2020).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4). The 4th Reading Culture Promotion Plan (2024-2028).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National Diet Library of Japan (2018). A Study on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Public Libraries. Available:
https://current.ndl.go.jp/wp-content/uploads/mig/report/no17/lis_rr_17.pdf
- NDLSEARCH (2024). Available: <https://ndlsearch.ndl.go.jp/>

- Noguchi, Takenori (2024). Current status and outlook of services for the disabled in libraries: focusing on public libraries. *The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ssociation*, 74(10), 406-412.
- Noguchi, Takenori & Uemura, Yashio (2021). *Library Accessibility: Toward Rational Considerations*. Tokyo: Jusunbo.
- Ok, Hyun-jin (2020, September 19). Reading welfare policy for the underserved. Joint Conference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Association and the Korean Reading Association.
- Osaka Prefectural Central Library Homepage. Available: <https://www.library.pref.osaka.jp/site/central>
- Park, Chansu (2021). A note on the sustainability of publishing big textbooks. *Studies of Korean Science*, 47(1), 31-54. <http://dx.doi.org/10.21732/skps.2021.98.31>
- Reading Barrier-Free Consortium in School Libraries Homepage. Available: <https://accessreading.org/conso/>
- Reading Culture Promotion Act. Law No. 19794.
- Sapie Homepage. Available: <https://www.sapie.or.jp/cgi-bin/CN1WWW>
- School Library Promotion Act. Law No. 18547.
- Suita City Library Homepage. Available: <https://www.lib.suita.osaka.jp/>
-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24). Development of plans for the promo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reading environment for the visually impaired. Available: https://www.mext.go.jp/content/20240710-mxt_kyousei02-000012302_1.pdf
-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25). the Council of Parties concerned in promoting the improvement of the reading environment for the visually impaired. Available: https://www.mhlw.go.jp/stf/newpage_09443.html
-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2020). A basic plan for promoting the improvement of the reading environment for the visually impaired. Available: <https://www.mhlw.go.jp/content/000648646.pdf>
- Toshima City Library Homepage. Available: <https://www.library.toshima.tokyo.jp/index?1>